김남일 “카리스마 홍명보처럼…”

3년만에 태극마크…대표팀 최고참의 각오

소집 3시간 전 파주 NFC 숙소 들어와 개인운동

“후배들과 아직 서먹하지만 동국이가 있잖아요 2002년 홍명보 주장처럼 후배들 잡을 것 ㅋㅋ”

“치료실이 어디 있나 한참 찾았네요.”

김남일(36·인천 유나이티드)이 쑥스러운 듯 말했다. 대표팀은 레바논(6월5일)-우즈베키스탄(11일)-이란(18일)과 월드컵 최종예선 3연전을 앞두고 27일 파주NFC에 소집됐다. 대표팀은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날 한 차례 오후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최강희호 멤버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선수는 김남일이었다. 그는 2010남아공월드컵 이후 3년여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11년 전 홍명보처럼

소집시간은 27일 낮 12시였다. 취재진은 보통 소집 시간에 맞춰 NFC 숙소로 들어가는 선수들을 인터뷰한다. 김남일을 한참 기다렸지만 허탕을 쳤다. 알고 보니 그는 아침 9시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경고누적으로 주말 경기를 못 뛴 그는 원래 전날 밤 오려고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아침 일찍 들어와 개인운동을 했다. 김남일은 오랜만의 소집 소감을 담담하게 풀어놨다.

“치료실 어디 있나 한참 찾았어요.(웃음)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니 흥분됩니다. 경기에서는 공수를 조율하는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팀에 어리고 좋은 공격수들이 많아 기대됩니다. 대표팀 경기를 보며 후배들과 함께 뛰면 호흡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도전적인 패스를 보여주겠습니다.”

김남일은 이동국(34)과 곽태휘(32) 등 몇몇 고참급을 제외한 나머지 후배들에게 삼촌뻘이다. 막내인 손흥민과는 무려 15살 차. 김남일은 “어린 후배들 사이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는 모범답변을 피하고 솔직하게 답했다.

“애들 참 착하더라고요. (이)동국이랑 방에 같이 있는데 애들이 일일이 방에 와서 인사했어요. 인상 깊었습니다. (손)흥민이가 저에게 인사한 뒤 저를 지나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더라고요. (김남일을 평소 롤 모델이라 밝힌) (박)종우와도 인사했죠. 사실 서먹합니다. 얼른 분위기에 적응해야죠. 동국이가 있으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참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한 흔적도 엿보였다. 김남일은 2002년 3월, 대표팀이 스페인 전훈을 갔을 때를 떠올렸다. 당시 대표팀 최고참은 홍명보 전 올림픽팀 감독이었고, 김남일은 20대 중반의 팔팔하고 겁 없는 나이였다.

“11년 전 (홍)명보 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때 명보 형이 며칠 동안 우리를 다 지켜본 뒤 하루는 모두 부르더니 엄하게 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정말 카리스마 있고 인상 깊었습니다. (홍명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훈련 똑바로 안 하냐고, 욕 비슷하게 섞어가며 말했던 것 같은데요. (웃음) 저도 이번에 후배들에게 똑 같이 한 번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하하.” 파주 |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전을 앞두고 축구대표팀이 27일 파주 NFC에 소집됐다. 6월5일 레바논과의 원정을 앞두고 3년 만에 대표팀에 소집된 김남일(왼쪽)이 훈련 도중 이근호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파주 NFC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 최현길 사커에세이

중동 ‘인샬라 악몽’의 기억들 태극전사 컨디션 조절이 우선

기자들의 해외출장은 대부분 부서 내 순번에 따라 또는 출입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불복이다. 축구 담당의 출장지는 주로 유럽이나 동아시아, 서아시아(중동), 오세아니아 등인데, 아무래도 축구선진국인 유럽 쪽의 선호도가 높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타들이 즐비한데다 전 세계 축구문화를 선도하기에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출장 복이 없는 편이다. 2000년대 초중반 중동지역을 안방 드나들 듯 했다. 월드컵 예선, 올림픽 예선, 클럽대항전, 친선대회의 취재를 위해 중동을 자주 찾았다. 안 가본 곳이 거의 없다. 동료들은 ‘중동 전문’이라고 불렀다. 물론 중동축구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출장 빈도 때문이다. 후배들이 출장 갈 때면 길라잡이가 되곤 한다. 건조한 기후여서 물을 많이 마셔야하고, 사탕 등 단맛이 강한 주전부리는 필수이며, 에이컨 사용을 자제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돌이켜보면 무더운 기온과 텁텁한 공기, 회색빛 풍광만이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중동원정이 가시밭길인 이유는 기후나 잔디, 시차, 광적인 홈 팬, 텃세, 음식 등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중동 특유의 독특한 리듬 응원도 짜증 유발 요인이다.

한국은 그동안 중동원정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중동원정 A매치(대표팀 간 경기)에서 14승12무12패를 기록했다. 중동팀과의 역대전적인 68승43무33패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원정에서 단 한번도 이기지 못한 국가는 이란(2무3패) 이라크(2무1패) 오만(1패) 등이며, 사우디아라비아(2승1무2패) 쿠웨이트(2승2무2패)와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

충격적인 일도 몇 번 겪었다. 대표적인 게 ‘오만쇼크’다. 2003년 10월 아시안컵 예선에서 오만에 1-3으로 졌다. 당시 오만의 국제축구연맹(FIFA)랭킹은 102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에 취해 있던 한국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코엘류 감독은 지도력을 의심받았고, 몇 개월 뒤 월드컵 예선에서 약체인 몰디브와 무승부(0-0)를 기록하면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레바논 쇼크’도 잊을 수 없다. 2011년 11월 브라질월드컵 3차 예선에서 FIFA랭킹 146위의 레바논에 1-2로 패했다. 몇 골 차로 이기느냐에 관심이 쏠렸을 뿐 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경기였다. 당시 패배가 빌미가 돼 조광래 감독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경질 당했다.

중동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인샬라’다. ‘신이 원한다면’으로 해석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철칙으로 통한다. 모든 게 신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믿는다. 경기에서 이겨도 인샬라고, 져도 인샬라다. 부상당해도, 골을 넣어도 마찬가지다. 중동축구의 상징인 침대축구(이기고 있을 때 그라운드에 자주 드러누워 시간을 끄는 행위)도 그들 입장에선 인샬라일 것이다. 인샬라 탓에 그동안 한국축구가 ‘쇼크’를 당했는지도 모른다.

27일 소집된 대표팀은 2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떠난다. 거기서 며칠 간 훈련한 뒤 6월1일 레바논에 입성한다. 6월5일(한국시간)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 원정경기가 예정돼 있다. 현재 A조 2위인 한국은 레바논을 반드시 꺾어야 본선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내 경험상 한국이 중동에서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실패였다. 낯선 환경에서 컨디션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대표팀 최강희 감독도 “훈련 때는 물론 쉬는 시간을 활용해 컨디션을 조절해야하는데, 더위 때문에 힘들다. 그렇다고 방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는 것은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레바논쯤이야’ 라며 자만심을 가져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모래바람을 겁낼 필요도 없다. 전력상 한국이 분명 한수 위다. 관건은 태극전사들이 스스로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거다. 더 이상의 ‘쇼크’는 없어야한다. 스포츠 2부 부장

편집 | 심승수 기자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earPASS Q70 Voice Amplifier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더욱 막강해진 성능! 최신형 음성증폭기 이어패스 Q70
12단계 미세음량조절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자유롭게 볼륨조절하여 사용하세요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 손쉬운 원터치 작동방식으로 간편히 사용
◀ 간편한 휴대성, 약 30배 전지증폭기능
◀ 가격부담없는 최첨단 음성증폭기
이럴 때 사용하세요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다.
상담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다.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다.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쉬운 충전방식(컴퓨터 USB/220V)
이어훅 착용시 완벽한 고정으로 운동이나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2013 최신형 이어패스Q70 新製品
(Made in KOREA)
◀ 더욱 줄어든 하울링 현상
스피커 음향이 스피커로 들어가 반복증폭을 줄여주는 하울링 감소기술 탑재
◀ 충전알람기능
베터리 부족시 40분 전에 LED램프 점멸로 미리 충전시기를 알림
◀ 볼륨 콘트롤러 슬로우 업 기능
갑작스런 음량변화 없이 최대한 부드럽게 12단계로 음량을 조절
볼륨↑↓ 전원램프 전원버튼 마이크
확장이어폰 연결시 한쪽/ 양쪽귀로 고음질 청취
주파수 대역 : 0Hz ~ 8KHz
최대음향이득 : 40dB
최대출력음압 : 120dB
외형사이즈 : 18mm×55mm×8mm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분/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 분/ 제품보호용 필름을 제거하신 분
길이: 5.5cm 무게: 9g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통신판매 제2012-서울관악-0010호
구입문의 무료전화:1577-8469 입금계좌 : 농협 351-0544-6090-23 이혜연

쥐나고, 퉁퉁붓고, 피곤하고 지친 발
수면 중에 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발이 차가워 걱정되는 분...
바르면 뭉친 발이 풀려 편안해지고, 개운하게 잠도 잘자고 !
◀개발자 (주)하나코스 중앙연구소장 민윤식
지유플러스 발크림을 개발하여 발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발사랑 알리미”로 더욱 정진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축소판▶
한의학에서 발은 신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발을 잘 다스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비자들이 믿고 구매하는 상품을 만들겠다” 라는 최정근 대표이사의 의지와 밤낮을 잊고 주말을 반납하며 연구에 매진한 연구진의 노력으로 탄생한 ‘GU+’. 피부에 청량감과 쿨링감, 진통기능을 가진 맨톨을 사용하여 마사지와 함께 시원함과 개운함을 주며, 달팽이 점액여과물, 레몬추출물, 마치현 추출물 등 피부미용과 보습에 좋은 성분을 함유한 우리 발건강의 새 지평이다.
216개의 뼈로 이루어진 발은 한뼘정도의 크기에서 우리 체중보다 훨씬 큰 무게를 견뎌야하는 막중한 수고를 하고 있으나 신체부분 중에 가장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서있거나 신발이나 구두에 의해 발은 혹사당하기 일쑤이어서 퉁퉁부어 신발을 신기 어려울 정도이거나 심지어는 뼈에 이상이 와서 발이 변형되기까지 한다.
이에 발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발크림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화제인데 바로 GU+ (지유 플러스) 라는 제품이다.
GU+ (지유 플러스) 발크림은 (주)하나코스 중앙연구소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의학을 기본으로 발에 있는 반사경락(반사구)의 자극을 도와 혈행을 원활하게 해주어 차가운 발, 퉁퉁 붓는 발, 저리고 쥐나는 발, 심하게 갈라지는 발, 스타킹 코가 잘 안나가는 발, 건
발은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을 지니고 있어 발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하고 생활이 힘들어
강하고 아름다운 발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손에 적당량을 덜어 발등과 발바닥에 골고루 발라주고 흡수가 잘 되도록 마사지해주면 되며, 발크림이지만 손에도 사용하면 차가운 손, 손저림이나 힘을 써서 손이 부었을 때에도 사용해볼만하다.
(주)하나코스는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선정, 2008년 업계 최초로 ISO 9001: 2000/ ISO 22716: 2007인증, KS Q ISO 9001: 2009/ ISO 9001: 2008 인증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ISO-GMP수준의 설비를 구축하고있는 강한 기업으로 “팔리지 않아 재고가 되는 제품이 아니라 소
GU+ CATCH FOOT CREAM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해야하는 분
운동, 등산등 발을 많이 사용하는 분
긴 시간 의자에 앉아 일하는 분
평소에 손발이 차고 저리신 분
구입문의 : 1577-1955
입금계좌 : 농협 312-0093-8575-61 김금희
통신판매 제2012-서울관악-0010호